

## 경영혁신 시행 두 달, 5S 분기점 안착, TPS 본격적 시행



“뿌리깊은 혁신나무  
열매는 일등기업”

우리 회사는 매월 첫째 수요일을 '경영 혁신 Day' 로 지정하고 지난 7일 그간의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 2개월간 수행한 5S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좋은 팀에 대한 시상, 경영혁신 표어 시상 등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구역장과 개인으로 나누어 5S 월별 시상이 이뤄졌고, 구역장 부문에서는 업익상 선임팀장이 이끄는 STR반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본사

손인철 팀장의 직영배관반을 포함해 총 3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각각 10만원과 5만원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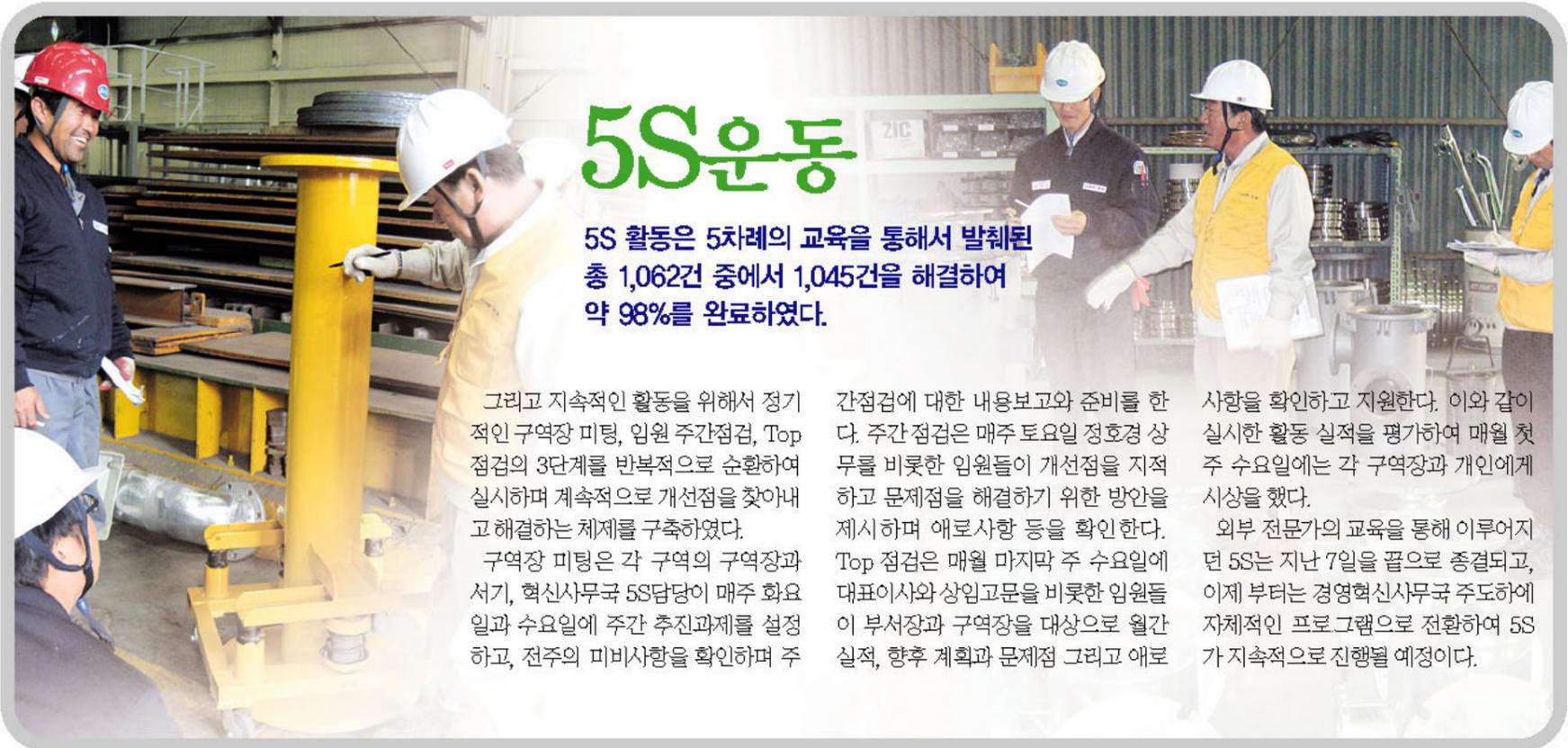
또 개인 부문에서는 본사 하종성 팀장을 비롯해 구평 공장의 김주환 소장, 영도 공장의 표종원 대리가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수한 사원을 비롯한 6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5만원, 2만원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이어진 경영혁신 표어 시상에서는 생산 3팀 김동식 사원이 “뿌리깊은 혁신나무

열매는 일등기업”이라는 표어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김수한 대리를 비롯한 4명이 우수상을, 김영자 사원을 비롯한 6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를 통

해 다 득점 순으로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표어는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회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 5S운동

5S 활동은 5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발췌된 총 1,062건 중에서 1,045건을 해결하여 약 98%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정기적인 구역장 미팅, 임원 주간점검, Top 점검의 3단계를 반복적으로 순환하여 실시하며 계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구역장 미팅은 각 구역의 구역장과 서기, 혁신사무국 5S담당자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전주의 미비사항을 확인하며 주

간점검에 대한 내용보고와 준비를 한다. 주간 점검은 매주 토요일 정호경 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개선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다. Top 점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대표이사과 상임고문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서장과 구역장을 대상으로 월간 실적, 향후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이와 같이 실시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매월 첫 주 수요일에는 각 구역장과 개인에게 시상을 했다.

외부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던 5S는 지난 7일을 끝으로 종결되고, 이제 부터는 경영혁신사무국 주도하여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5S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PS** 는 5S 교육 완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 걸쳐 1차 교육을 완료했다. 1차 교육에서 도출된 127건의 문제점을 테마형, 즉실천, 검토과제로 분류하고 통합하여 테마형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각 팀별로 2~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2,3차례의 지도를 통해 개선활동을 할 예정이다.

**PI** 는 전체 9팀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상분석까지 완료하여 11월 12일 Champion, Process Owner, 추진 Leader 및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개선 Process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으며, 각 팀별 Process에 대해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활동은 현상분석에 따른 개선 인자를 도출하는 단계이며 오는 12월말까지 선정된 9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PI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BSC** 는 3차 지도와 BSC Catch Ball을 통해서 BSC 추진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3차 지도에서는 부문별, 부서별로 작성된 CSF, KPI를 토대로 전사 차원의 조정, 검토, 목표합의에 대한 지도가 이뤄졌다. 이달 초에 실시된 Catch Ball을 토대로 전사 BSC 추진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사 전략과 각 부문과 부서별 전략, 목표 등에 대한 Gap 및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다. 그동안 부문별 위주의 전략회의 및 지도에서는 참여가 미흡했던 BSC 추진리더들도 최적인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많은 이슈를 제기하며 각 부서별 목표와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BSC는 오는 12월 중순 보고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목표합의와 추진전략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코마린(KORMARINE) 참석

우리 회사는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벅스코(BEXCO)에서 열린 코마린(KORMARINE)에 참석했다.

국제조선기자재 및 해양 장비를 전시하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는 회사동영상 소개, 카탈로그, 3D 도면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전시했다.

이번에 처음 참가해 비록 타 회사들의 규모에 비해 적은 규모였지만 타 회사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처음 참가하는 만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다양한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와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다음번에는 회사 규모에 맞는 넓은 부스에서 우리 회사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천을 통해 <생산관리 신재석 사원>, <생산관리 최재호 과장>, <설계부 황제환 사원>, <설계부 김황중 차장>, <관리부 윤강재 과장>이 이달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 연말 선물용 양복 검측

우리 회사는 올해 연말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24일 회사 식당에서 양복 검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검측에서 한 직원은 "사실 양복이 입을 일이 많지 않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양복을 선물로 주어 정말 기쁘다. 목표달성 축하라는 기분 좋은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매출목표 초과 달성을 앞두고 전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는 계기가 됐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 9명의 전문 연구가의 집필 〈이야기 한국고대사〉



〈이야기 한국고대사〉는 국내의 9명의 각 분야의 교수님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각 분야의 교수님들에 의해 저술된 이야기 한국고대사는 우리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각 나라의 건국, 발전과정 및 경제, 사회, 문화면 등에서 다양한 시료와 사진들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한다.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 이후, 만주와 한반도 각지에는 부여, 고구려,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립되었다. 초기 국가들의 설립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며 삼국 시대를 형성하였고, 낙동강 유역에서 성장한 가야가 등장했다. 7세기에 접어

들면서 삼국은 치열하게 대결하였다. 한반도의 삼국통일을 이룬 통일신라와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발해가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며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고대왕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우리민족의 근간을 형성하는 고대사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을 갖는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생산 "탁월한 품질의 발판"

## 한창엔지니어링

창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한창 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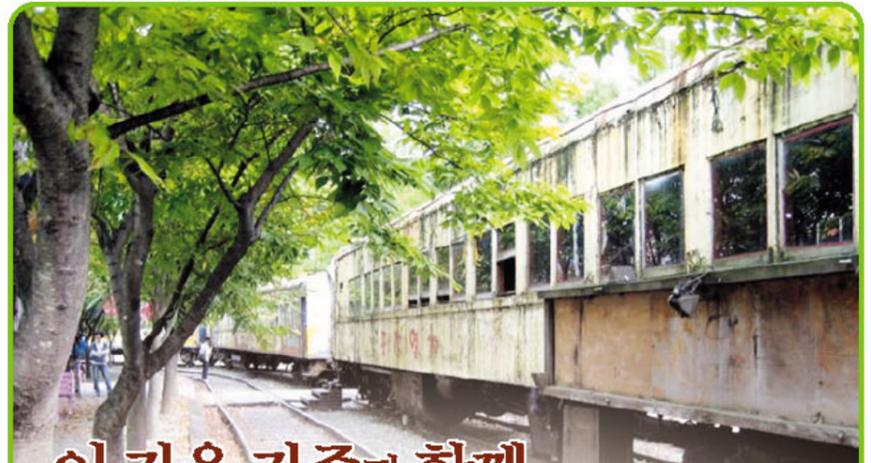
한창 엔지니어링은 배관 파이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다. 2000년 5월에 설립되어 그 해 10월부터 우리회사와의 거래를 시작했다.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회사와 돈독한 인연을 맺어 온데 대해 이희진 이사는 "한창 엔지니어링이 설립되기 전에도 조선관련 일을 했는데 그때 선보와 일을 할 기회가 많았다. 그것을 계기로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 20명의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창 엔지니어링은 단기간 내 초고속 성장한 업체다. 이희진 이사는 "동일업종 내에서는 매출량이 높은 편이다. 만 7년만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업체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함께해준 직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선보의 도움 또한 컸다"고 전했다.

한창 엔지니어링 이희진 이사는 "항상 직원들에게 미래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배려해주는 부분이 이롭다. 선보가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고 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협력사라고 낮게 보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가족같이 대해주는 선보에 대해 "파이프 배관에 있어서 선보 덕분에 수주를 안정적으로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순서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긴급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드는 것 같다. 앞으로도 늘 지금까지처럼 좋은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이 가을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추천 여행지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이 우수수 떨어져 하나의 장관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 그림책에서나 볼 법한 낡은 철길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일 것이다. 신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밀양 위쪽에 위치한 경상북도 청도 이번 호에는 청도에 대해 소개 하려고 한다.



스' 지역처럼 꾸며놓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한 여러 빛깔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더해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레스토랑을 조금만 벗어나면 볼 수 있



청도에는 '프로방스'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울긋불긋한 낙엽과 벤치 그리고, 아무렇게나 벽에나 낙서했던 철없는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멋스럽게 녹슨 곳곳에서는 세월이 흔적이 묻어나올 것만 같은 기차와 낡은 철길이 어우러져 처음 오는 이도 금방 추억 속 어딘가로 끌려들어갈 법한 익숙함이 퍼무는 그곳, '프로방스'. 실제 프랑스 남부지방의 '프로방



는 와인터널. 이 와인터널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감'으로 만든 와인이 저장되어 있어 많은 와인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주위에는 온천도 자리 잡고 있어 여행에 지친 몸을 와인이 몸속에 들어가 퍼지듯 따뜻하게 데워내기에 적

합하다. 하늘과 나무들만 봐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가을, 연인 혹은 가족과의 모습이 이 같은 풍경과 어울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가을의 꼬리가 보이기 전에 '청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 경품 응모권

보내는 사람

소속 :

이름 :

이번 사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숨은그림 찾기의 정답과 함께 응모함에 넣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
- 앞으로 사보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
- 사보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 청찬 릴레이

생산2팀 박희순

남녀노소 구분 없다.  
여풍(女風)이 대세!

선보가족 20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김영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박희순씨

칭찬 릴레이 20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평소에 주변에서 '아, 저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제가 주인공으로 선정되어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분량의 일을, 제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다른 분들처럼 했을 뿐인데 칭찬해주시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회사에 재입사한지 1년 9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은 페인트 작업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특별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한다고 보다 저희 팀 팀장이 남편이다 보니까 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부인이라고 더 챙겨주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라고 엄하게 일을 가르치는 남편 덕을 토크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남편이 하는 스프레이 도장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나까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남편이랑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되요.  
가끔 무안을 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든든한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들이 제가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요.

21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주변에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신용기 소장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항상 추진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하는 모습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요.  
바쁜 공정에서도 많은 사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신용기 소장님을 다음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구공 공장
생일	생일
구매부 최동배 (12/10)	설계부 임기섭 (11/27)
생산관리 김종섭 (12/14)	대경산업 양정수 (11/17)
생산2팀 이강모 (11/18)	김상현 (11/17)
김영민 (11/26)	석기열 (12/7)
박재용 (12/11)	양현준 (12/8)
생산3팀(순해) 조영록 (11/19)	영입부 이철우 (11/18)
생산3팀 김수환 (11/28)	계영식 (12/13)
생산3팀(유성) 김수환 (12/7)	조남석 (12/15)
백선우 (12/11)	입사일
생산3팀(금천) 나일도 (12/12)	설계부 이순복 (11/20)
	황제현 (11/28)
	박성호 (12/13)
	대한ENG 장민규 (11/21)
	명성산업 성기모 (11/24)
	김주현 (12/2)
	입사일
	설계부 홍성원 (11/20)



생생 현장의 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김이곤 대리 · 유승진 대리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할 때 마음가짐은?

저희는 생산된 제품을 거제와 울산 등에 있는 현대, 삼성, 대우, 미포조선 등에 납품하고 모기업 공정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요. 설계도면 전달과 더불어 서류처리를 할 때도 있고 현장 업무 등의 공업관련업무도 해요. 사내 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면 내일이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정해진 기간 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 업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회사 밖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회사 밖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은 같은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에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까 사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재들은 밖에서 놀다가 퇴근할 때서야 들어온다' 라는 눈빛으로 볼 때면 서운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까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아

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다보니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때론 일을 하다보면 힘들다가 보다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동종 업계에서 3년 전까지 '선보'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나갔어요. 품질이 라든가 여러 면에서요. 근데 요즘을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정상이었던 우리 회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많이 속상해요.

선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채찍을 줬다면 당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회사 밖에서 일할 때면 여러 회사의 경우를 많이 듣게 되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품들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타회사와 비교했을 때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